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8강, 고린도전서 7:1-7a,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고린도전서 7:1-7a,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우리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꽤 방대한 책이죠, 그렇죠? 제 말은,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같은 책이 고린도전서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을 많은 신학적 패러다임과 창의적인 구성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텍스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측면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7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장은 매우 도전적인 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도전적이지 않은 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많은 하위 문제가 포함된 이 다소 복잡한 장을 생각하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면서 볼 것입니다.

7장 마지막에 성경과 이혼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7장은 그 주제와 약간 관련이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혼 금지 외에 다른 내용을 말하는 본문이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예외 조항이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몇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성경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당신 앞에 있는 노트를 완성하려면 아마 세 번의 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8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노트 팩 번호 10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노트 팩은 이혼에 대한 주제의 여백 때문에 꽤 큼니다.

실제로 115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장을 잠시 계속 읽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과 몇 가지 서론적인 내용을 시작해 봅시다.

이것이 이 서신의 본문에서 세 번째로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1장은 클로에의 가정으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룹니다. 5:1, 성행위와 소송에 대한 특정 구두 보고, 5장과 6장. 그런 다음 7장은 당신이 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NIV 2011도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 텐데, 이제 당신이 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의 핵심을 파헤칩니다. 잠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은 고린도 공동체가 그에게 던진 여러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어, 글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을까요, 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들이 편지를 쓰고, 어서, 폴, 당신은 이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걸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을까요.

왜 다른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제 말은, 질문의 진실성보다는 적대적인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7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에는 바울이 때때로 학대를 당하고, 확실히 그들의 생각 중 일부와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이 죽음 주변 구절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혼과 성 문제를 다루는 7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이교 사원의 문화적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런 다음, 11장은 교회 질서와 성별에 대한 내용이며, 그 장에서 교회 질서의 일부인 주의 만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2장부터 14장은 영적 은사와 관련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볼 것입니다. 15장은 인간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16장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기금 모금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서신 자체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고린도전서의 중간쯤 왔지만, 우리 앞에는 고려해야 할 매우, 매우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치는 절반 정도입니다. 저는 강의를 30시간 제한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7장을 진행하면서 강의 시간이 15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7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15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이 몇 개의 해설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읽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가이드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학생이 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이 구성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찰스 텔버트는 다시 말하지만 매우 짧은 책입니다.

섹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읽기에 좋은 책이지만, 그는 카이아스틱 구조를 지향하지만, 동시에 섹션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albert의 이 장의 구성은 구조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지가 지금은 페리 데아 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2011 NIV가 이것을 사용하는지 봅시다. 이제 당신이 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관련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911, 1909 ASV와 같은 공식적 동등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NASB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개정된 표준판이 7장의 이 특정 항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Peridei 는 지금 걱정스러운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유지한 것이 기쁩니다.

NIV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파헤쳐야 할 겁니다.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1, 20, 7:25, 8:1, 12:1, 16:1, 16:12, 그리고 다른 주제를 표시하기 위한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이 마커는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이 마커가 항상 코린트 공동체의 다른 질문이나 도전을 표시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제 변경에 대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커를 사용하고 문단을 관찰하면 고린도전서 7장은 내가 여기 87장 하단에 준 개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구역 결혼 문제에 응답하고, 그다음 B에서 바울은 실용적인 지혜에 비추어 미혼자에게 조언합니다. 7:25에서 40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노트에서 그 개요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맨 위의 4번이 7~16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작은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A는 총 7장이어야 하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나누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요는 약간 벗어납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쨌거나 그 개요를 추적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개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꺼내서 보고 흐름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로는 4장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A 장 7장, 그 다음에는 1, 2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면 여기 맨 아래에 1, 2, 1A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인쇄할 때쯤이면 노트는 거의 다 정해졌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어진 개요를 그대로 따라가도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7~16쪽의 더 큰 부분과의 연결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좋아요, 바울은 섹스와 결혼 문제에 대해 대답합니다. 1~7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성적인 결혼의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1~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7b에서 24까지, 결혼에서 바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델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바울보다 앞선 모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라고 불립니다. 결혼 명령은 창세기에 주어졌습니다. 창조를 지배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등장해서, 그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맥락은 특별하고, 그는 7장에서 자신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비록 그가 그들이 그와 같기를 바랐지만요. 그것은 현재의 곤경에 비추어 기능적인 사역의 바람이며, 이 장 전체에 풍미를 더하는데, 아마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견해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7:25-40에서 바울은 실용적인 지혜에 비추어 미혼자에게 조언합니다. 인구의 미혼자 부분은 매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미혼 기간이며, 다시 미혼이며, 과부처럼, 다양한 질문의 측면에서 미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개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규범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요점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7장에는 규범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규범은 결혼과 섹스입니다. 실제로는 자녀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결혼과 섹스에 대해서는 다룹니다.

그것은 규범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약간 비규범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결혼했든 아니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는 독신으로 보이고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서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가 주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는 그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언제든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지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는 독자들에게 규범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에 비추어 조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법한 일입니다. Talbot이 이렇게 말합니다. 7 :25-40의 두 번째 부분인 이 엄격하게 구성된 부분에서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편지에서 제기한 미혼자의 문제를 다루며 신학적으로는 결혼에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욕망을 통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의 선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스탠리 모로우는 신약성서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그 기사에서 바울의 독신에 대한 견해가 그것이 선물이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 시나리오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것은 폴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Garland는 또 다른 관찰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Talbot의 프레젠테이션 개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88페이지에서 Garland가 우리에게 가져온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Garland는 주어가 서두 동사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가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과 그런 선을 따른 구분을 보는 대신, 그는 주어가 서두 동사, I say, I commend, 또는 I think로 나뉜다고 봅니다.

이러한 표식을 통해 그는 결혼 내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장을 7:1에서 5까지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미혼자와 과부를 위한 독신 또는 결혼, 6에서 9까지. 기독교인과 결혼한 사람과 비기독교인과 결혼한 사람을 위한 이혼, 7, 10에서 16까지. 저는 그가 여기서 그의 용어 중 일부에 대해 약간의 자유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토론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D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7에서 24까지.

페리데아가 소개한 7장 내부에서, 가랜드가 들어와 그리스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나는 당신에게 명령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말의 동사는 가랜드가 찾고 있는 것에 따라 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중요한 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개하는 동사를 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마커들을 전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몇 가지를 리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국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Garland의 관찰과 맞다면, 그렇게 하세요.

구조와 관련해서 7~16장에 대한 peridea 로 돌아갈 것입니다 . 하지만 7장 내부는 섹션에 대해 매우 악명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면서 관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대부분이 7, 1에서 7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 NIV에 나타난 문단에 가깝게 개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문단은 여전히 도움이 되지만 Talbert의 카이아스틱 관찰과 같은 더 깊은 구조는 표면적 의미에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서 제시한 전형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Talbert의 것이 아니라 제 것입니다.

하나는 섹스와 결혼의 확인, 7:1~7. 결혼의 신성함, 7, 8~16. 독신과 과부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은 영구적입니다, 10~16.

10장과 11장의 도메니코 전통은 예수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바울이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7장에서 24절까지 다른 요인과 함께 원칙으로 남아서 이것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미혼 여성에게 조언을 하는데, 여기에는 25~35세의 과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E, 약혼한 처녀에 대한 특별 이슈는 아마도 이 모든 범주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의 마지막에 과부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읽을 때는 단어를 읽지 않고, 훑어보지 않고, 정보를 찾습니다. Talbert를 보면 정보를 찾습니다. 7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Garland를 보면, 그는 7장의 구조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 주석을 비교하고, 공통 분모를 찾은 다음, 그 지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Fee의 7장부터 16장까지의 주석 서문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7~16장에 편지 본문의 세 번째 주요 단위에 대한 꽤 상당한 소개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독서입니다. Richard Hayes,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해석 시리즈에서 그의 작은 책을 좋아합니다.

그는 7장의 큰 아이디어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없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철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말했다면 Victor Wimbush는 Paul the Worldly Ascetic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몇 가지를 나누고,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 :1-7은 결혼한 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7:8-9는 미혼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7:10-11, 결혼한 부부, 두 당사자 모두 신자입니다. 그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 텍스트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7:17-24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며, 일반 원칙에 대한 진술입니다.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이 그룹들은 고린도 전서 공동체 내의 개별 하위 그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신자들을 이 모든 범주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이게 복잡해지고 있지 않나요? 제 말은,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 편지가 그들에게 읽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회중은 여러 개의 작은 회중이었을 겁니다.

그 회중에서, 이 구석에, 결혼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구석에,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석에,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처녀들이 누구이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장이 한편으로는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25-38까지는 약혼한 당사자들입니다. 이것이 그가 처녀들을 언급한 방식입니다.

7:29-35, 금욕적인 경건에 대한 짧은 막간극으로, 바울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7:39-40, 재혼 문제에 대한 나이 많은 과부들. 740, 나이 많은 과부들에 대한 결론과 이 장의 결론.

그래서, 이 장은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결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수준의 주제입니다. 결혼해야 할까요?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불신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서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과부가 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재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처녀라고 불리는 특별한 범주의 수준에서.

매우 흥미롭네요. 89페이지 3번, 이혼에 대한 성경 본문 개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7장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7장의 본문을 살펴보고 나서 돌아와서 성경과 이혼에 대한 꽤 철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7장 1-40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세트가 있는데, 1:24와 25-40은 제가 찾아낸 방식입니다.

다시 한다면, 워버시의 돌파구나 갈랜드의 돌파구 같은 것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고, 주요 요점 대신 하위 요점으로 했고, 그래서 그게 지금의 방식이에요. 할 준비가 되면 원하는 대로 개요를 따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같은 곳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섹스와 결혼 문제에 응답합니다. 1-7의 결혼 현실은 규범적이고 성적인 것이지 독신이 아닙니다. 이제 1-7을 들어보세요. 편의상 2011 NIV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쓴 내용,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옛 킹 제임스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번역했습니다. RSV는, 새로운 RSV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문자적인 번역이고 매우 공식적이며, 나중에 Gordon Fee가 전체 기사를 썼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원래 NIV를 비판하기 위해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꼼직한 번역이었습니다.

적어도 2011년은 바뀌었지만, 지금은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접촉이라는 단어를 성관계의 은유로 여겼고, 그 은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2절, 하지만 성적 부도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5절과 6절에서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는 주로 연회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또한 성전과 관련하여 발생했는데, 성적 애인이 특정 이교도 예배 장소의 일부였고, 성전 매춘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고린도와는 달리, 이보다 몇 년 전이었지만,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적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각 남자는 자기 아내와, 각 여자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결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양보합니다.

저는 많은 남성의 두뇌가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것을 우려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영역에서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에게 박탈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상호 동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단지 잠시 동안만 기도나 다른 영적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그런 다음 함께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진술인데,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자제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양보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폴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이유로 섹스와 결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오늘 밤 섹스를 하지 않으면 더 영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폴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좋은 섹스 라이프를 가져야 합니다. 폴의 양보는 그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금욕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 대화에서는 둘 다이며 둘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사에 근거한 것이지 선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당신의 선물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마커는 1a에 있고, 우리가 이미 알아차렸듯이, 그리고 1b에 질문 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인가, 인용문인가, 긍정인가, 슬로건인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Fee의 기사를 읽어보면,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은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의 명확한 은유입니다. 그것이 이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Paul, 그것은 주장입니까 아니면 인용문입니까? 그것은 확언입니까 아니면 슬로건입니까? 그것이 주장이라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진술을 하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남자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왜 그는 문단의 끝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1c를 취하지 않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슬로건이라면, 진술로 표현되었든 원래 청중의 질문이든,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인용한 다음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특정 범주의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c가 질문으로 구성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질문 아래 있다면, 원래 질문은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원래 질문은,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알다시피, 누군가가 바울에 대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보다 바울이 재구성한 원래 질문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덜 불안정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더 좋다는 용어나 필요한 용어보다는 좋다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원래 질문을 완화했을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일종의 금욕주의가 깔려 있었고, 그것이 여기 결혼 상황에서 새어나오는 듯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결혼, 순수한 부부입니다. 바울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NIV 원본, 적어도 84년판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7:1의 번역에서, 그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이 장 전체와 정반대이고, 1절에서 7절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지배했습니다.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장의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와 창조 명령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고든 피(Gordon Fee)는 이상한 이유로 NIV 원본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고, 적어도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속하지 않았지만, 이 번역에 너무 화가 나서 1980년 12월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 기사를 썼는데, 당연히 84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버전입니다. NIV 원본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사를 썼습니다. NIV로 고린도전서 7:1.

그리고 그는, 그것은 매우 복잡한 기사이고, 매우 정교하고, 그는 그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는요.

그들은 오래전에 이것을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NIV의 이 형편없는 번역은 2011년에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슬로건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구성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번역을 했고 RSV가 한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RSV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든,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고 독자가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형식적 동등성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처럼 당신을 대신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아내야 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관련된 사람들 중 몇몇은 알지만,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아요. 이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장인가 인용인가? 확인인가 슬로건인가? 글썄요, 제 생각에 답은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돌아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울이 2에서 5까지 평가한 것은 질문 후, 그들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질문인지, 주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폴에게 얼마나 친절하거나 친절하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찰스 텔버트는 2에서 5까지의 카이아스틱 구조를 지적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설명을 확장할 것입니다.

카이아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 90페이지에서 제가 당신을 위해 구성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하지만 음행 때문에. A 프라임, 자제력 부족으로 인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종종 원래 A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B, 각자 아내나 남편을 두십시오. B prime, 서로를 빼앗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C, 남편이 성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세요. C,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D,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권한을 갖습니다.

D 프라임, 아내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카이아즘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얽히고, 시작하고, 언급하고,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E가 있다면, 중앙에 E가 하나 있다면, 그 중앙은 매우 중요하고 통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른 가능한 상황에서 이것을 볼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섹스와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타당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연회와 성전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커플이 좋은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두라는 명령은 섹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며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바울은 좋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으라는 창세기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교사들과 유대인들 자신에게도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그런 결정의 혜택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90페이지 하단의 결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상호의존을 증진합니다.

7:3-6. 이것은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배우자의 성적 금욕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3절에서 바울이 ought를 사용한 것은 고린도 공동체에 대한 논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남편은 should입니다. 그것이 ought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철학으로 옮기면 의무론적 범주가 됩니다. 즉, 필연적 범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야. 네가 더 잘해야 해. 남편이 해야 해.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결혼 의무를 다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한 결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차트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NRSV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3절에서 남편은 should,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아이디어는 이 고전적인 단어 ph e le , 즉 ought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저 제 눈을 저기에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결혼 상태는 각 파트너에게 다른 파트너가 수락해야 하는 특정한 결혼 권리를 부여합니다.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금욕을 실천하려면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상호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섹스는 규범적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섹스는 의무론적 원칙입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이런 일을 제 경험상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제 전 학생이 결혼해서 결혼이 결혼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계속되었고, 결혼 생활은 결코 성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결혼 생활 과 그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생활을 해소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아이를 원했고, 결혼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저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섹스의 특권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번식을 위한 섹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의 장로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해결했고,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취소를 위해 법원을 통해 그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식적인 취소를 받았고, 특히 로마 가톨릭이 북동부와 같은 지역을 지배했을 때 법원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잠시 펜실베이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몬시뇰을 뉴스에 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무효 선언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파트너십에서 섹스가 전혀 없었을 때, 특정 종교적 전통과 심지어 시민 정부에 의해 취소가 비교적 쉽게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혼했고, 아이를 가졌고, 그 점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결혼은 단지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파트너십을 위한 것이고, 성행위는 쾌락과 번식을 위한 그 파트너십의 거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과거 기독교 전통 중 일부에서는 쾌락과 섹스라는 개념이 배제되었지만, 그 특정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이기보다는 플라토닉했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있는 91페이지. 7:5에서 서로 성적 해방을 박탈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금지의 현재 명령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어 문법으로 데려가지만, 우리는 이것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탤릭체로 쓴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청중이 서로를 박탈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로 봅니다. 이 문단에서 다루는 하위 집단은 서로를 박탈하고 있으며, 바울은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형이 있는 현재 시제일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계속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명령을 멈추는 것은 진행 중인 것을 멈추는 생각인 반면, 진행 중이 아닌 것을 시작하지 말라는 생각과 관련된 과거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쎄요, 저는 그런 것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많은 문법에서 그것을 읽을 겁니다. 이제, 여기 요점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법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부 문법가, 일부 주석가, 예를 들어 Weiss 단어 연구라는 매우 형편없는 책 세트는 그리스어에 대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절대적으로 멈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문법을 잘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이 그것을 의미한다면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아오리스트 가정법이 있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만큼 멈추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글을 쓸 때 담배를 피우거나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원리의 모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문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독단적이 되지 마세요. 하지만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리스어 문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필요한 주장은 아니지만 맥락적 함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바울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금욕주의적 사고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맥락은 또한 섹스가 오로지 번식을 위한 것이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반대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의 오래된 측면, 특히 미국에서요. 글썄요, 저는 모든 그룹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룹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점을 가진 일부 기독교 공동체는 섹스가 추악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권의 많은 독립 및 침례교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끔찍한 삶을 살았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욕의 삶을 쏟아부었고, 섹스가 실제로는 더럽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섹스가 더럽다고 헐박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섹스는 더럽지 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매우 주의하세요. 섹스는 더럽다는 것은 흔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은 플라토닉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그것은 존재하며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이런 사고방식에 부딪힌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따로 수영을 해야 하니까요. 글썄요, 세상에는 항상 정욕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을 지역 사회에서 좋은 아이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분리하려고 하면 정욕이 더 심해집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의 자격. 들어보죠, 글썄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7:6의 양보는, 죄송하지만, 저는 안경이 세 쌍이나 있어서 제 눈을 집중시켜야 해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양보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명령으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7:6의 양보는 바울의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해석적 질문은 7:6에서 지시대명사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입니다. 그는 7:6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양보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첫 번째 요점입니다. 7:6의 양보는 7:2의 결혼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결혼을 자제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양보이자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덜 바람직한 선택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관계대명사인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보가 결혼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바울은 좋은 유대인입니다.

창세기는 결혼을 명확하게 합니다.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성경의 전통은 결혼을 표준으로 만듭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혼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7:6의 양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7:5의 서로 합의한 성적 금욕을 말합니다. 바울이 7:5에서 서로 합의하지 않고는 서로를 빼앗지 말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여러분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의역입니다.

7:6의 양보는 7:5의 상호 합의된 성적 금욕을 가리킨다. 그것은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서의 섹스는 표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한 것은 상호 합의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섹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돌아와서, 내가 양보로서,

그저 논쟁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서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달려가서, 글썄요, 바울은 금욕하는 것이 더 우월한 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할 만큼 예민합니다.

또는 양보는 7:7을 언급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하나 너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니라. 그는 이 시점에서 독신인 듯하고, 양보 는 그것에 적용되며,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로 선택하더라도 그들은 덜 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미혼이라는 것을 실용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처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바울은 이 구절의 틀립을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결혼이 표준이고, 섹스가 표준이며, 섹스는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몇 가지 영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그 중 심각한 부분,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접근 방식입니다.

Winter는 이 중성 대명사가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실제 또는 암시적 대명사가 뒤따를 때 대명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참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다음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이 맥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할 만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양보를 다시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단지 대화의 한 형태일 뿐이고, 바울은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성관계를 금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여러분이 모두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것을 바랄 수 있다면, 그 바램은 명령도 아니고 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이 혼자 하고 있던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맥락에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종말론과 예수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의 견해,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인 목적에서도요. 그것이 당신을 더 영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되고 싶다면, 기도하고 섹스를 하세요.

그게 더 영적인 것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단 성경은 7:1에서 7까지를 단위로 합니다.

ESV는 7:6과 7을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어 7:6을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열어두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문단을 사용하여 7:6을 1에서 5까지 연결하지 않고 7:7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해석적입니다. 많은 그룹에서 꽤 인기를 얻은 ESV, 영어 표준 버전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가능한 한 문자적이고 필요한 만큼 자유로운 공식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ESV를 더 많이 읽을수록 그 버전에서 더 많은 동적 동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번역자의 관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문단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데 역동적인 측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석을 기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큰 문단을 유지하고 독자가 결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단을 나누면 해석적 결정을 내리고, 블록에 해석적 번역이 생깁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ESV는 6, 7, 6, 7을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어 7, 6을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열어 둡니다. 성경에서 구두점과 문단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달려 있는지 놀랍습니다. 같은 번역을 사용하더라도 구두점과 문단은 독자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역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을 유능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해석에 대한 견해를 보류하고 번역해야 독자를 이끌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91페이지 하단.

창세기와 다른 가정 구절의 패턴 때문에 바울이 결혼의 우선권과 모순되는 인간성에 대한 견해를 장려하는 것은 이상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능적으로 독신의 이점을 인정하지만, 결코 그것을 규범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7:7은 환경, 즉 7:8~24의 맥락을 조건지웁니다.

마지막 구절 7절과 24절을 읽어보세요. 또한 목회서신에서 사역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그의 지시를 비교해보세요. 7:7에서 은사와 선택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물은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은 당신의 선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인생이 당신에게 특정한 선택을 요구하는 손을 내밀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신 생활의 선물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으며, 왜 효과가 없을지에 대한 이유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욕망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평생을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신의 섭리로 잘 안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신의 섭리이고, 그들은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온갖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특정한 핸드를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윤리와 성경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연주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희생해야 하며, 때때로 성경적 윤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 자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상황이 사람에게 결코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 명령과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이 문제가 선택이 아닌 선물에 근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혼은 정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신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동 방침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종의 경건한 선택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하지만 그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환관이 됩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요.

하지만 그것도 표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표준에서 나온 야망입니다. 좋아요, 92페이지.

도론 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

도론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12장에서 14장의 선물 장에서 영적 은사 또는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성하신 어떤 종류의 은사로 사용됩니다. 첫째, 바울의 은사 언어는 우리의 목록에 또 다른 항목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선물 목록에는 없지만 선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왜 목록에 넣지 않나요? 알다시피, 목록 하나로는 목록 전체가 되지 않아요. 모든 목록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때조차도, 당신은 전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목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목록은 항상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목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장에서 12장까지 나중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의 은사 언어는 우리에게 목록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은사는 보통 특별한 기부이기 때문에 결혼은 아마도 은사가 아니라 규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선물이 아니다. 결혼을 선물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갈랜드는 독신이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의미.

그것은 개인적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자제력의 공로 있는 업적도 아니지만, 그것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누구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정육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둘째, 선물로서, 그것은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장난감과 자유를 갖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원하지 않고 자유가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백인 미국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장난감을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대체로 이기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가족에게 유전적 결함이 유전되지 않는 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과 선물에 대해 말하는 데 조심하세요.

셋째, 이 선물은 사람을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만들고, 따라서 매우 이례적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정육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선물을 가지고 있고 누가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찾아내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개인에게 결혼이나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에는 신의 뜻을 행하고 신의 뜻을 찾는 언어가 없습니다. 글썄요, 거기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뜻은 당신이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마도 신의 뜻이라는 생각보다 더 오용된 건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책이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일련의 강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책을 구매해야 합니다. Lagos, Decision-Making God's Way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이름을 입력하세요. 영어와 스페인어로 나올 겁니다. 풀, 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개인에게 결혼이나 독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규범입니다.

사실, 문장에 to marriage를 추가하세요. 표준입니다, to marriage를 추가하세요.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적 욕구로부터의 자유인 선물은 소금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일상 생활에서 분별 됩니다 . 따라서 어떤 자기 부과적이고 가정된 소명 때문에 열정으로 타오르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관적 과정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불타면, 당신은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 당신은 결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섭리를 경험한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부정적인 섭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하더라도,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썬요, 나는 독신의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신의 섭리로, 어떤 이유에서든, 나이든, 내 상황이든,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것과 함께 오는 도전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신이 나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은총으로 주시는 날이 올 때까지. 나에게서는 20대에 제단에 갔고, 그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 그게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인생에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못했어.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재능이 있었고, 목사였습니다.

그에게 청혼하는 여성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를 따라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60살쯤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와 저는 특정한 것들과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농담을 나누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 놀렸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시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타락한 세상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사물은 원래 설계된 대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그의 후년에 그 관계의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타면, 당신은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가을 신학이 결혼에 대한 결정과 자녀에 대한 문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때때로 우리는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대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삶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정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글썬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92쪽 2a에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고린도전서 7:1-7a,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입니다.